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선진국들은 임금이 낮은 개발도상국에서 경제적 기회를 만들고 있다. 그렇다면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서 초저임금으로 노동을 시킬 수 있을 때 가능한 한도까지 낮춰서 노동력을 사는 것은 불가피한 것인가? 아니면 윤리적으로 옳지 않으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인가?

필자는 초저임금으로 노동을 시키는 것에 대해 불가피하다, 즉 정당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개발도상국이 초저임금으로 선진국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은 개발도상국의 안정적인 경제 체제 도입에 기여한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국민들을 위한 정부의 경제적 역할이 부실하고 정권이 부패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장이 활성화가 될 때 독점구조에 의한 빈부격차가 더욱 커질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투자하여 지사를 설립하면 개발도상국의 시장 독점 및 과점 구조를 바꿀 수 있으며 이는 개발도상국의 안정적인 경제 체제 도입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관점으로 봤을 때 개발도상국에서는 낮은 임금을 통해 선진국의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개발도상국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단편적으로 봤을 때 초저임금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것이 비윤리적이고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수 있지만, 장기적 봤을 때 개발도상국의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하므로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다. 실제 사례로 인도의 경우 삼성, 애플, 구글 등 많은 글로벌 기업이 인도의 경제 성장 가능성과 값싼 노동력을 높게 평가하여 인도의 노동력을 샀다. 그 결과 인도에 있던 기술 인재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고 인도는 IT 강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이다. 낮은 임금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투자를 하지 않는다면 개발도상국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며 이에 따라 선진국과의 기술적, 경제적 격차를 줄이는 것 또한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개발도상국에서의 아동 노동은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인가? 선진국은 국가 자체가 경제적으로 부유하기 때문에 열악한 환경에 놓인 아이들을 지원해줄 수 있는 제도(무상급식, 한부모 가정 지원 등)가 마련이 돼있다. 하지만 선진국과 달리 개발도상국은 경제적 여건이 갖추어 지지 않았기 때문에 열악한 환경에 처한 아이들을 지원해줄 제도가 부실하다. 아이들은 노동을 함으로써 평소에 개발도상국에서는 배울 수 없었던 선진국의 기술을 배울 수 있으며 이는 개발도상국의 경제적 성장을 기대해볼 수 있다. 즉, 아동 착취가 아닌 아동 노동이라는 가정 하에 아동 노동은 정당화될 수 있다. 아동이 한 가정의 경제적 기둥인 경우에는 자신의 노동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며 일자리가 매우 간절할 것이다. 만약 아동이 자신이 하고 있는 노동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다른 직장을 찾아 나설 것이다. 아동 노동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여 제3자가 개입해 아동 노동을 금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는 일자리가 간절한 아이들에게 오히려 피해를 줄 수 있다. 실제로 1993년 미국 아이오와주의 한 상원의원은 아동 노동착취 제품의 수입을 금하는 아동노동억제법을 발의했다. 이 조치가 이뤄지자 방글라데시에 있는 공장 한 곳은 5만여 명의 아동을 일거에 해고했다. 하지만 해고된 아이들은 학교로 돌아가지도, 더 좋은 일자리도 찾지 못했으며 외려 영세한 미등록 하도급 공장으로 내몰려 더 심한 착취를 받거나 생존을 위해 성매매로 길거리로 내몰렸다. 제3자의 개입으로 인해 자신의 간절했던 일자리를 잃는 원치 않은 결과를 맞이한 것이다. 만약 아이들을 노동 착취로부터 보호하고 싶다면 아동 노동을 전면적으로 금하는 것보다는 노동 현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환경을 개선해주거나 착취의 위기에 처한 아이들을 보호하려는 제도를 마련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